



양현종 “오타니 보다 밸런스 더 신경썼다”

〈日 대표 투수〉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오타니요? 신경 쓸 틈도 없었어요.” KIA의 양현종이 2016시즌 시동을 걸었다. 양현종은 24일 일본 오키나와 나고 시영구장에서 열린 니혼햄 파이টার스와 연습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2이닝을 소화했다. 기록은 2이닝 3피안타 1실점(비자책).

양현종의 첫 실전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투수 오타니가 니혼햄 선발로 나오면서 눈길을 끌었던 경기였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많은 팬과 취재진이 찾으면서 그라운드 안팎으로 시끌시끌 했지만 정작 화제의 중심이 된 양현종은 “오타니를 신경 쓸 틈도 없었다”는 반응이었다.

양현종은 “아마 등판을 하지 않고 덕아웃에서 봤다면 오타니의 피칭을 유심히 봤을 것이다. 하지만 어깨 상태에 신경 쓰느라 오타니를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내가

좌완 첫 3년 연속 15승 목표 실전 점점 앞당겨
니혼햄전 2이닝 1실점... 김호령, 오타니에 2루타

중요했다”고 웃었다.

양현종은 지난해 스프링 캠프에서는 실전 경기를 소화하지 않았다. 페이스를 늦추면서 시즌을 준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일찍 실전에 투입돼 컨디션 점검에 나섰다. 역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깨였다. 이날 양현종의 직구 최고 스피드는 137km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양현종은 “어깨 상태가 좋다. 스피드는 나오지 않았지만 밸런스가 좋았기 때문에 만족한다”며 밝은 표정이었다.

양현종은 “직구보다는 변화구를 많이 던졌다. 변화구가 낮게 제구가 됐던 것 같다. 첫 게임이라 밸런스에 신경 썼다. 예전에는 스피드가 나오지 않을 때 밸런스도 안 좋았는데 몸이 쏠어지는 부분이나 밸런스 전체로 괜찮았다. 무리하지 않고 타자들의

반응을 살펴 보면서 던졌다. 피칭이 부족해서 타점 그런 게 아직까지는 부족하네 각각은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부족했던 스피드를 체인지업 등을 통한 타이밍으로 만회했던 양현종은 올 시즌도 이와 비슷하게 풀어갈 계획이다. 밸런스·코어에 집중해서 웨이트를 하면서 팔이 나가는 부분이나 힘을 집중해서 쓰는 부분은 더 좋아졌다는 설명이다.

스타트를 끊은 양현종의 2016시즌 목표는 확고하다.

양현종은 “15승을 목표로 하겠다. 프로 야구 좌완 최초의 3년 연속 15승이라고 한다.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 한국 야구에 이름을 남기고 인정받고 싶다”며 “(팀의) 선발진이 갖춰진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것은 오랜만인 것 같다.

자신감 있고 자부심인 것도 같다. 승패를 떠나서 선발진이 끌어주고 이닝을 책임져 주면서 불펜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양현종의 맞상대로 눈길을 끌었던 오타니는 3이닝 1피안타 2볼넷 5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1회 선두타자 김호령에게 2루타를 허용한 오타니는 이인형과 나지완을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홈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2·3회는 삼자범퇴로 끝났다. 김호령에게 148km짜리 직구를 강타당한 오타니는 1회 바로 스피드를 끌어올려 최고 160km를 찍었다.

이날 오타니를 상대로 2루타를 때려낸 김호령은 “삼진만 당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타석에 섰는데 기분이 좋았다. 직구만 보고 있었는데 초구 타이밍이 괜찮았다. 공을 맞추자는 생각으로 쳤다”고 웃었다.

한편 KIA는 니혼햄 타선에 출른 두 방을 허용하는 등 2-12로 지면서 4연패를 기록했다.

/오키나와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이긴 팀 9회말 공격하고 한·일 공인구 함께 사용

KIA 타이거즈와 니혼햄 파이টার스의 연습경기가 열린 24일 나하 시영구장. 홈팀 니혼햄이 10-2로 앞선 상황에서 KIA의 9회초 공격이 끝났다. 관중석을 가득 채운 니혼햄 팬들은 9회초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나오자 승리의 박수를 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대로 경기가 종료된다.

하지만 KIA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던 한승우가 마운드로 향했다. 타석에도 타자가 들어섰다.

연습경기니까 가능한 9회말이었다. 승패가 걸려있는 경기이기는 하지만 연습경기는 선수들의 전력 점검이 우선 목표다. 그런 만큼 양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스코어에 상관없이 9회말을 진행하기도 한다. 최대한 많은 선수를 경기

연습경기니까... 에 투입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다.

앞선 23일 요미우리와의 경기에서는 비 때문에 경기가 늦게 진행되면서 양 팀은 사전에 7회를 약속하고 연습경기에 들어갔다.

일본팀과의 연습경기에도 또 하나 궁금점. 경기를 할 때 어떤 공을 쓸까? 다른 리그의 두 팀이 만나는 만큼 양팀이 들고오는 공인구가 다르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는 두 종류의 공이 쓰인다. KIA의 수비때는 한국프로야구 공인구가 사용되고, 일본팀의 수비 때는 일본 리그에서 쓰는 공인구가 주어진다.

경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즌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시즌에 맞게 준비를 하고 연습 경기를 하는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



오타니

큰 부상 아닙니다 윤석민·한기주·신종길 귀국

투수 윤석민과 한기주 그리고 외야수 신종길이 25일 귀국길에 오른다.

윤석민은 어깨, 한기주는 허벅지, 신종길은 무릎이 100% 상태가 아니다. 큰 부상은 아니다. 전진을 위한 일시 후퇴다.

어깨가 좋지 않은 윤석민은 검진을 받은 뒤 시범경기에 페이스를 맞출 예정이 다. 한기주는 애리조나 캠프에서 좋은 밸런스를 보여줬지만 4년 만의 스프링 캠프를 치르면서 허벅지 쪽에 부상이 왔다.

캠프 원주는 못했지만 우려할 상태는 아니다. 윤석민과 한기주의 경우 오키나와 캠프에서 정상적으로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특히 한기주는 캠프 다음 텀까지도 고령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무리해서 실전 경기에도 나설 수는 있지만 진짜 시즌을 위해 속도를 늦춘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



무릎 부상에서 회복 중인 강정호가 2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크턴 파이리츠 시티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 스프링캠프 공식훈련에서 수비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루 수비·배팅머신 타격... 스프링캠프 소화 KANG해지고 있다

“올라이트(alright), 정호!” 무릎 부상에서 회복 중인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피츠버그의 공식 스프링캠프 첫 날인 23일(현지시간) 순조롭게 훈련에 참여했다.

팀의 주요 투수·야수가 모두 참가하는 스프링캠프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크턴에 있는 피츠버그의 훈련장인 파이리츠 시티에서 열렸다.

강정호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이곳에서 재활 훈련을 받았고, 이날 들어서는 수비와 타격 연습을 하기도 했다.

이날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일부 훈련을 건너뛰기는 했지만, 다른 동료 선수들과 함께 정해진 연습 일정을 대부분 소화했다.

강정호는 팀의 주전 유격수 조디 머서와 짝을 이뤄 캐치볼을 했다.

다음 훈련은 투수와 내야수들이 호흡을 맞추는 견제구 훈련이 진행됐다. 그러나 강정호는 이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무릎 굽혀 넓은 보폭으로 걷는 등 별도의 스트레칭 훈련을 했다.

다시 수비 훈련 공간으로 돌아온 강정호는 손 로드리게스와 함께 3루 위치에서 약 15분간 평고를 받았다. 강정호는 이번 시즌 복귀 후 주전 3루수로 뛰리라는 전망을 받고 있다.

이후 강정호는 1루로 옮겨 1루수 후보들의 땅볼 타구 처리 연습을 도왔다. 이때 로드리게스는 2루 땅볼 처리 연습을 했다.

강정호는 다시 3루로 돌아와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평고 연습을 했다. 다만

정면 타구만 받고 러닝 스루나 사이드워크 등 움직이면서 포구하는 연습은 하지 않았다.

수비 연습은 평고를 치던 코치가 강정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끝났다. 강정호는 이날 모든 공을 빼집없이 다 받아냈다.

다음 일정은 투수와 직접 대면하고 타격 훈련을 하는 라이브 배팅이었다. 라이브 배팅장 앞에 모여 있던 팬들은 강정호가 다가오자 큰 소리로 환호를 보내며 응원했고, 강정호는 손 인사로 화답했다.

강정호는 제이소와 머서에게 이어 타석에 들어서 투수 후안 니카시오가 던진 4개의 공을 지켜봤다.

이어 강정호는 투수 자레드 휴즈를 상대로도 공을 지켜봤다. “괜찮다(pretty good)”이라고 외치던 허들 감독은 강정호에게 좌타자 자리에서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시 니카시오와 마주한 강정호는 2·3번째 공에 천천히 방향이를 휘둘러봤지만, 공을 치지는 않았다.

강정호는 실내 타격장으로 이동해 타격 훈련을 이어갔다. 배팅머신이 던지는 공에는 시원하게 타격을 가했다.

약 2시간가량 이어진 2016시즌 첫 공식 훈련을 마친 강정호는 “이전과 똑같다. 항상 하던 훈련이어서 크게 다를 것 없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러닝을 100% 뛰지 못하는 것 빼고는 거의 다 한다”며 “수비 연습은 정면으로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허들 감독은 “강정호의 진척 상태가 아주 좋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바르셀로나의 19세 이하 팀 후베닐A의 이승우(앞줄 왼쪽 네번째)가 23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 미니 에스타데에서 진행된 덴마크 미트윌란과의 2015-2016 UEFA 유스 리그 16강전에서 3-1로 역전승을 한 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FC 바르셀로나 공식 트위터 캡처>

이승우 후반 45분 결승골... 8강 진출 UEFA 유스 리그 바르샤 후베닐A, 미트윌란에 3-1 승

한국 축구의 희망 이승우(18)가 극적인 결승 역전골을 넣으며 팀의 UEFA 유스 리그 8강 진출을 이끌었다.

바르셀로나의 19세 이하 팀 후베닐A의 이승우는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니 에스타데에서 진행된 덴마크 미트윌란과 2015-2016 UEFA 유스 리그 16강전에서 1-1로 맞선 후반 45분 결정적인 득점을 기록했다.

바르셀로나는 경기 추가 시간에 추가 득점을 기록해 3-1로 승리,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승우의 득점은 극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이승우는 경기 종료 직전 득점 기회를 얻었다. 역승 기회였다.

카를로스 페레스가 상대 수비수의 공을 빼앗아 공격 기회를 만들자 이승우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진영에 파고들었다.

페레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승우에게 후방 패스를 했고, 공을 받은 이승우는 수비수 세 명을 뚫고 상대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를 만들었다.

이승우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떨지 않았다. 침착하게 오른발을 이용해 상대 골키퍼 왼쪽으로 슛을 시도했고, 공은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 경기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승우는 이날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팀 동료 백승호도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아 73분간 활약했다. /연합뉴스